

OpenDoors

01

2022

VOL.237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북한선교현장-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 (11)

박해와 선교현장
북한 (North Korea)

현장스토리
북한교회의 비전을 전하다
가끔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북한에 희망은 있는가?



박해현장이 궁금하다면
QR을 스캔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김성태 교수
(한국국문도어 공동대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장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교훈이다. 가난과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종종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남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지옥에 들어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여 세상에 다시 나아가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권면의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악한 부모라도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하였다.

지난 2 년 동안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고통과 위협을 주고 있다. 북한의 상황은 어떠한가? 11월 중에 북한 교회 지도자의 소식이 전달되어왔다. 시장의 물가가 어떤 품목은 70에서 90배가 올랐다는 것이다. 기름은 식물성인지 동물성인지 북한 전역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서 사람들은 모두가 말라비틀어져 있다. 보통 한 끼니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이 전 인구의 60퍼센트가 넘는데 그것도 정상 식사가 아니다. 북한식 용어로 변이, 대용식량이다. 풀뿌리와 곡식 껍데기 등을 섞어서 양을 부풀린 식량이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기에 심각한 영양실조와 대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변비를 유발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은 새로운 수령론과 김정은 주의를 앞세우면서 북한 전역에서 우상숭배를 강화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소위 자본주의 풍조인 황색바람과 한류와 기독교의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서 혹독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걸려서 잡힌 사람들이 수만 명을 넘어서므로 정치범수용소를 세 곳이나 확장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경제에 있어서 자력갱신을 앞 세우면서 북한 주민들을 닦달하여 전국적으로 자원 재활용을 위한 폐품 수집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지 못한 사람은 현금으로도 내게 하는 북한 주민을 쥐어짜는 강압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오늘의 북한 상황은 지옥의 한 장면이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께서 공생애시에 모든 연약함 속에 둘러 싸여 있으셨기에 외로움과 추위와 굶주림과 고난 속에 있는 주님의 몸의 연약한 지체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고 말씀하신다. 북한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한다. 그분께서 그분의 연약한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본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는 소식도 심상치 않다. 탈레반 이슬람 근본주의 정권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죽이는데 그 사례가 천 건에 달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은 공황상태에 놓여 있다. 그 나라를 탈출하지 않으면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직접적인 죽음의 위협 하에 놓여 있다. 아프가니스탄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연말을 맞이하여 아직도 여전한 전염병의 위협 가운데 고통받는 전 세계의 고난 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특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국교회를 대변하여 고난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 주님께서 가장 어려

운 시기에 풍성한 후원금을 주시는 이유가 그리스도 몸의 연약한 지체로서 고통 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더욱 분발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게 하심이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여행에 제한을 받고, 현장 사역자들이 현지 교인들을 섬기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추수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서 그 분께서 문을 열어 주시고, 도울 수 있도록 그 분의 일꾼들을 사용하심을 알고 있기에 영적으로 더욱 각성하고, 분발하여 지치지 아니하고, 고난 받는 교인들을 돕는 일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바울사도가 말씀하신 바처럼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모든 이사, 간사, 현장사역자들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려 한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기도와 후원이 요청된다.

CONTENTS

04 북한선교현장-탈북민 수기 - “신앙의 자유를 찾아” (11)

07 박해와 선교현장 - 북한

12 현장스토리1 - 시몬, 북한교회의 비전을 전하다

16 현장스토리2 - 마태와 베드로의 고백

19 심화현장 - 디모데, 북한에 희망이 있는가?

20 Hear to Heart -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모임

21 한국오픈도어 연중캠페인

22 희망의 선물 캠페인 - 시리아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을...

23 WWL2021 박해국가를 위한 기도
/ 코로나 긴급 후원 요청

2022년 01월호 | 통권 237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사

사무총장 _김경복 선교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김지옥, 김혜정, 오현정, 문민환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김샛별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루디아는 신입반으로부터 전방(轉房)되어 우리 감방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의 호감을 샀다. 말재주가 상당해서 중국에서 봤던 영화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 등을 아주 생동감 있고 재미있게 잘 전달했다. 감방의 다른 사람들도 루디아가 말하고 있으면 어느덧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바뀌고 설날이 되었다. 감방에서 설날이면 죄수들끼리 서로 포옹하면서 인사하는 문화가 있었다. 평상시에는 등을 돌리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 눈을 마주치고 꼭 인사를 하였다. 언제 살아나가는지 혹은 언제 죽는지 기약이 없는 그 곳에서 서로 동병상련의 처지를 다독였다. "우리 꼭 살아나가지. 이겨내자!"라고 하며 그날만큼은 미워도 밉지 않았다.

그 와중에 나는 루디아 선생님에게 처음으로 다가갔다. 그 분은 새삼스러운 웃음으로 나에게 인사를 하였다. 나는 그 분



귀에 바짝 대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속삭였다. 선생님은 토끼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네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그 분께 어느 날 담요 밑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들었다고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만이 느낄 수 있는 영적 호흡인 것 같다고 말했다. "주기도문 아는가?" "안다." "사도신경 아는가?" "안다." 이렇게 짧은 대화를 마치고 우리는 서로의 두 손을 꼭 붙들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었다.

루디아와 친해지면서 좀 더 자세한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루디아는 내가 탈북 하기 훨씬 전에 자녀들을 데리고 탈북을 하여 중국에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했다. 중국으로 건너오는 탈북자들을 엄마처럼 안아주면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다. 보석을 이어서 십자가를 만들어 팔기도 했고, 천을 사서 밤새 성극용 의상을 손수 만들기도 했다. 성극 안무나 대사도 직접 짜서 지역 교회를 돌아다니며 순회 공연도 했다. 순회 공연을 하려고 지역 이동을 할 때 길에 곳곳에 위치한 검문소와 공안의 감시를 피해 기적적으로 안전하게 이동했다는 간증이 귀했다. 나중에는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라는 권유도 받을 만큼 안팎으로 신뢰받는 성도였다. 이처럼 중국 땅에서 탈북자와 고향 땅을 품으며 열심히 주님을 예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루디아는 성경 공부 모임 도중에 공안에 잡히게 되어 복송 되었다. 변방대에서 대기하던 중 그동안 양말처럼 보살피던 중국 여자가 찾아와 돈을 주고 보내해주겠다

고 했다. 그러나 루디아는 “나는 아버지 부름 받고 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고 한다. 이 곳 감옥으로 스스로 끌려온 것이다. 루디아는 또 그런 와중에도 중국 감옥에서부터 같이 잡혀온 어린 탈북 여성을 양딸삼아 돌보았다. 자기는 밥을 못 먹을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엄마처럼 밥도 챙겨주고 시시때때로 성경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쩌다 보니 그 아이도 루디아와 함께 교화소까지 이송되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다. 루디아의 왼쪽 가슴에 뿔루지가 나기 시작했다. 열악한 위생환경 속에 제대로 된 치료 없이 방치된 그 뿔루지는 굼고 굼아서 수술이 필요한 상태까지 되고 말았다. 결국 루디아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나는 그래도 함께 있으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까 싶어 교화소 내 진료소에 같이 가주었다. 교화소에는 종종 외과적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맹장이 아픈 사람들이 많았다. 식사에 돌이 절반 이상 들어있으니 맹장이 탈이 날 수밖에 없었다.

의사는 추운 겨울 날 실내 맨 끝에 히터 하나 놔두고 부분마취를 하며 수술을 시작했다. 마취도 충분치 않고 단번에 조치가 되지도 않으니 너무나 아팠을 태지만 루디아는 입을 꼭 다물고 주먹을 꼭 쥐고 신음소리를 요만큼도 내지 않고 잘 참았다. 옆에 지켜보던 간호사와 다른 환자들은 같은 여자라도 그분의 강인함에 감동이 된다며 참 특별한 사람 같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다.

수술하고 나서도 항생제는 커녕 제대로 된 후속 처치도 받을 수 없었다. 의료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했다. 그 때문에 수술 자국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살이 뒤집히고 노랑게 농이 생겼다. 다시 한 번 교도소 내 진료소로 가서 이번에는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시커먼 살을 가위로 잘라 내었다. 그 때도 루디아는 두 손을 꼭 쥐고 신음 소리 하나 없이 견뎌 내었다. 루디아의 강인한 정신력에 간호사들도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혀를 내둘렀다. 감방으로 돌아와서 루디아가 할 수 있는 치료는 작은 쇠 그릇에 소금물을 받아서 간간이 상처를 소독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렇게 루디아는 며칠 동안 출근하지 못하고 감방 안에만 있었다.

루디아가 겨우 출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어 함께 대열을 맞추러 나온 어느 날이었다. 우리 죄수들은 항상 군대와 같이 팔을 앞뒤로 흔들며 대열을 맞추어 걷도록 지시를 받았다. 루디아는 몸이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는지 배열을 맞



추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였다. 그 모습을 본 반장이 이쪽으로 걸어오더니 난데없이 루디아를 걷어찼다. 그 날 뿐 아니라 반장은 계속해서 허약자인 루디아에게 난데없는 폭력을 반복해서 자행했지만 죄수인 우리들은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감방에 들어와서 나는 매번 루디아를 돌보았고 루디아는 그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에 있냐... 기도가 중요하지.”라고 이야기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루디아를 그렇게 괴롭히던 반장이 돌연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 그 후로 루디아는 점차 회복하였다.

어느 날 루디아와 이야기하다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라는 찬양 이야기가 나왔다.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이 가사를 조금 바꾸어 부르다가 어느 날부터 인가 일할 때 소리 내며 노동요처럼 불렀다. 가사도 멜로디도 보통의 혁명적인 노래와 견주어 손색이 없는 힘찬 노래이다 보니 마치 주님이 이 때를 위해 예비하신 노래 같았다. 다행히 이 찬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 가사를 약간 고쳐서 남 신경 쓰지 않고 일할 때 불렀다.

하루는 일을 추가로 더 하면 부식을 더 준다고 해서 그거라도 먹겠다고 일터에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너무 힘에 부쳐 도저히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머리에 그 찬양이 떠올랐다. 나는 누가 듣든지 말든지 고래고래 찬양을 소리를 질러가며 불렀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찬양을 부르니 정말 몸에 힘이 솟았다. 이 절망적인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도 생겼다. 이 찬양이 정말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이 몸소 체험되면서 기도도 소홀히 하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은 김보배(가명)라는 신입이 한 명 들어왔다.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척해져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름표를 보고 나서는 왠지 내가 아는 그 얼굴이 아른거렸다. 가만 보니 중국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던 언니였다! 교회사에 오기 전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또 속을 몇 차례 비운 모양인지 뼈에 살이 간신히 붙어있어 처음부터 허약자로 분류되었다. 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처음에는 서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짐승 같은 곳에 둘 다 먹히다니...

보배언니는 몸이 약해서 매사에 도움이 필요했다. 친했던 나도 신경을 충분히 못 썼는데 감사하게도 루디아가 항상 보배언니를 챙겨주었다. 루디아의 동생이 가끔씩 교회사에 면회를 와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때마다 루디아는 그 받은 물건을 온 감방에 나누어 주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특별히 보배를 챙기곤 했다.

하지만 루디아의 친절과 인품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시기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루디아가 중국 감옥에서부터 딸처럼 챙겨주던 젊은 처자는 어느 순간부터 루디아에게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 이유도 없이 아예 등을 돌리고 말도 섞지 않았다. 루디아는 참 슬퍼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약육강식의 세계를 새삼 실감했다.

하루는 아침에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는 소리에 잠이 깼다. "내가 들었으니까 봐라. 지금 루디아 무슨 말 하나 봐라." 하면서 반대편의 루디아를 가리키며 말했다. 루디아가 저쪽 벽

에 기대서 어떤 자매에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도 속닥속닥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 귀를 기울이니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들리고 시내산이라는 단어도 들렸다. 감방 사람들은 생전 예수님이니 시내산이니, 또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보지 않았기에 무슨 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몇몇 죄수는 루디아가 요즘 수상한 말을 하고 있다며 이상하게 생각했다. 나는 루디아가 위험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나중에 조용히 내가 루디아에게 가서 주의를 주었다. "그만 하라우. 목숨이 두 개인 줄 아느냐? 왜 그걸 밖으로 표현을 하느냐." 조용히 속으로 기도만 하면 될 일이지 굳이 밖으로 표현하고 전도해서 괜한 위험을 초래하냐며 속상한 마음에 화도 내었다. 교회사 내에는 삼인일체 시스템이 있어서 죄수 세 명을 그룹으로 지어 서로를 감시하도록 했다. 당국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네 삼인일체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었다. 항상 그렇게 감시받는 곳이 바로 교회사인데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루디아의 행동은 정말 위험한 것이었다.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루디아를 놓고 쑥덕거릴 때마다 괜스리 내 가슴이 철렁하였다. 그렇지만 루디아는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언제 한 번은 루디아와 함께 출소하면 무엇을 할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나는 루디아에게 이제 몇 개월이면 출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출소 되면 나가서 같이 중국에 가자는 말을 했다. 조국이라고 품에 안겼는데 나를 이렇게 철창 속에 처넣은 이 곳을 나는 꼭 떠날 것이라고 한탄 섞인 푸념도 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은 "그래. 우리 같이 중국 가자." 라고 하겠지만 루디아는 달랐다. 단번에 "너는 가라. 나는 아버지 부르심 받고 이 땅에 왔으니까 여기에 남겠다." 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 봐주실 것이라고, 자신은 돈이 있어도 여기 계속 남아있겠다며 말이다. 그 당시 내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반응이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루디아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과 믿음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북한이 복음의 불모지이고 성도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끔찍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그 땅에 머물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을 난 알고 있다. 진정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 한지 질문할 때 나는 지금도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루디아 선생의 생생한 모습을 떠올린다. <다음호에 계속>

북한 North Korea



-인구 : 25,841,000명

-주요 종교 : 없음

-기독교 인구(카톨릭 등 포함) : 400,000명(오픈도어추정수치)

-기독교박해 순위 : WWL2021: 1위, WWL2020: 1위

-기독교박해 지수 : 94점

-주 박해 요인: 공산주의와 탈공산주의자의 압박, 독재정권의 억압

북한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

북한 크리스천들이 정부에 발각이 되면, 한국전쟁 이전의 기독교 공동체의 후손인지, 또는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예를 들면, 1990년대 대기근으로 인해 많은 북한사람들이 중국에 도움을 청했고, 종종 중국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기독교신앙을 갖기도 했었다.), 발각된 기독교인들은 정치범으로 체포되어 강제 노동 수용소로 추방되거나 발견 즉시 사살된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 역시 이들 기독교인들과 같은 운명을 맞아야 한다. 북한 사회 내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사회적 공간이나 활동도 허락되지 않는다. 예배를 위해서 다른 크리스천들을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혹여라도 만나려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평양에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지는 교회들은 대외 선전 목적으로 이용될 뿐이다.

북한 내 소수 기독교인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스스로를 계속 숨길 수밖에 없다. 특별히 최근 정치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서 더욱 조심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항상 보안과 감시가 특별히 삼엄하고 기독교인은 국가지도부와 사회 전반에 걸쳐 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 침해가 극심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 정부에 대항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정권체제는 모든 국민들을 감시하고 있다. 중국과의 국경지역을 통해 한국으로 향하는 탈북민들의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중국 접경지역이 박해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국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한 감시와 제제를 증가함에 따라, 탈북자들의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중국-북한 국경지역은 현재 매우 세밀하게 감시되고 있고, 중개인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더욱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로 국경지역이 엄격하게 통제됨에 따라,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국경을 넘는 모든 활동은 중단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수용소와 모든 통제구역들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크게 박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미국 국무부 발표, 2019년 3월), 이들 수용소로부터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고 정보의 업데이트 역시 거의 불가능하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수용소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확장했다고 알려진다(Daily NK 보도, 2020년 8월 10일).

정치적 상황

김정은체제는 정권유지를 위한 체제에 대한 존중과 안정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버지 김정일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라도, 아버지와는 분명 다른 리더십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은 대중 앞에서 대화를 잘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의 모습을 따라가려 애쓰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념이나 리더십에 있어서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김정은은 “위대한 후계자”로 선포되고 “최고지도자”와 “최고군사사령관”이라는 칭호를 부여 받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북한 노동당 제1비서 역할을 통해서, 모든 주요 권력기관(노동당, 정부, 군대)에서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과 회담 후 많은 희망적인 기대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진행된 2차 회담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완화나 북한의 핵무기 및 관련 프로그램 폐기에 대해서 양측의 매우 다른 기대감을 확인한 채 최종 정상회담 성명발표나 기자회견도 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다 같은 해 9월 매우 갑작스럽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은 판문점에서 전격적인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실무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국제 제재와 핵프로그램에 관한 추가 협상은 모두 실패했고 북한이 정한 회담 마감 시한 2019년 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갔다.

현재까지 한반도의 가장 가시적인 징후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철거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며, 이러한 발표를 김정은이 아닌 김여정을 통해 발표했다는 사실과, 2020년 한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김정은의 건강이상설과 김여정의 후계자설이 잠시 동안 이슈가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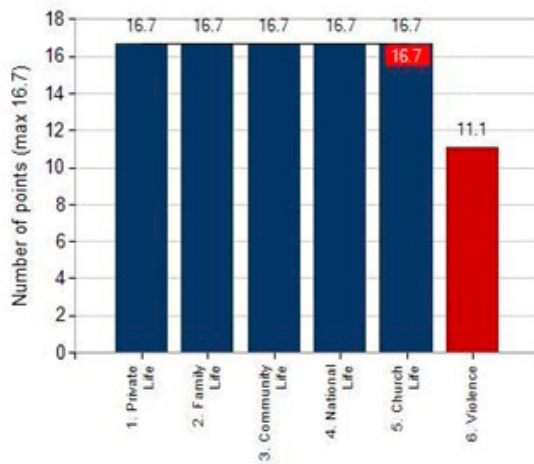
국제 외교의 '허니문'기간이 끝나고 사회적 통제와 국경지역 보안이 특별히 강화되면서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폐쇄된 국가의 정보를 얻고 내부의 기독교인들을 돕는 것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더욱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이 완전히 폐쇄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경제적 타격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모든 교통과 통신까지도 단절되었다.

북한에서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가?

개인 영역 :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정부와 지도자에 반하는 범죄로 간주된다. 북한 경찰과 첩보요원들은 사전고지 없이 가정집을 수색하는데, 수색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보통 일년에 한두 차례 이루어진다. 수색에서 만약 기독교자료가 발견된다면, 자료를 소지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지역에서 추방되어 수용소에 수감되고 잠재적으로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북한에서는 기독교 활동을 포함하여 기독교와 연관된 활동이나 의심스러운 어떠한 활동(예: 십자가 목걸이 착용 등)도 철저히 금지된다. 기독교적 이미지나 상징물을 보이는 행위는 김정은 가문이 아닌 다른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기념하는 것으로, 자살행위로 여겨진다. 십자가나 더하기 기호와 비슷한 한 마크들이 수시로 검열된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WWL 2021 Persecution Pattern for North Korea



제목: WWL 2021 북한의 영역별 박해 지수

세로축: 박해지수(최고 16.7)

가로축: 개인 / 가정 / 공동체 / 국가 / 교회 / 폭력지수

북한 모든 방송과 미디어를 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인가되지 않은 미디어나 방송에 접속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북한 정권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은 물론이고 라디오 수신기마저도 매우 위험한 기기로 간주하기 때문에 인가되지 않은 라디오 수신기나 스마트폰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위험을 감수하며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들으려면, 밤에 이불 속에 숨어서 군인의 감시를 꺾임 없이 경계하며 들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영아때부터 의무 교육을 통해서 “김일성주의(Kimilsungism)”에 세뇌되어 있다. 북한주민들은 김정은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반혁명적이고 위험한 사람들이므로 반드시 신고하도록 훈련되어져 있다. 가족도 예외는 아니며, 연좌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신고에 매우 적극적이다. 특별히 어린이들은 학교 선생님들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자신들이 배운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부모님을 보면 바로 신고하도록 잘 훈련되어져 있다. 기독교에 대해 가족 구성원들에게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적절한 때를 찾기 위해 수년간의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10대가 될 때까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숨긴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북한의 개인영역 박해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행동, 예를 들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자료 전체를 소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용을 암기한 후 대체로 자료를 분할(또는 파본)해서 보관한다. 거주지역을 벗어나서라도 다른 기독교인들과 만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가정 영역 : 세례는 가장 분명하고 눈에 보이는 기독교 신앙의 증거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공개적으로 세례를 할 수 없다. 세례식이 노출되면 세례를 받는 사람과 세례식을 행한 모든 사람들은 체포되어 수용소에 수감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세례는 아주 드물게 행해진다고 볼 수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기독교 신앙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가족 간에도 개방적인 기독교 교육은 불가능하며, 아이들은 매우 어린 나이부터 국가에 의해 세뇌된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교과목은 '김일성주의'이다. 어린이부터 대학생까지 모든 교육과정에 김씨 가족을 찬양하는 에피소드들이 활용된다. 북한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는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전복적 이념이며 모든 기독교인들은 북한에 대한 배신자이자 간첩으로 간주된다. 북한 정권은 이러한 선전을 퍼뜨리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기독교를 왜곡하고 있으며, 심지어 박사과정 과목 중 30%의 과목이 "주체사상"이라 불리는 체제유지를 위한 윤리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기독교인이 발각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기독교인들의 네트워크를 알아내기 위한 심문을 받을 뿐 아니라, 연좌제 원칙에 따라 가족과 친척들 모두 수용소로 보내지며 한 가족 전체가 해체되는 참상을 겪는다. 북한 내에서 공개적인 결혼식, 장례식, 성찬식 등등의 모든 기독교식 예배는 모두 불가능하다.

공동체 영역 : 처형되지 않은 노출된 기독교인들은 수용소나 외딴 산간지역에서 엄격한 감시를 받는다. 북한 보위부는 어떤 설명이나 경고 없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단속하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친척이 기독교인이면 엄격한 감시와 낮은 '성분'으로 분류되어 고통을 받는다. 모든 사람들이 엄격한 사회 통제 안에 있으며, 북한은 2018년부터 지역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공산주의 이웃 감시시스템인 '인민반'을 적용하고 있다(Daily NK, 2018년5월 25일). 마을단위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웃 내 훈

련된 요원들에 의해 당국에 보고될 것이며, 사실상 모든 활동과 방문을 포함한 기본적인 일탈까지도 모두 보고될 것이다.

모든 북한 주민은 주체사상 고치를 위한 출퇴근/통학 길에 김일성 동상에 절을 하는 것과 같은 감씨 가문을 찬양하고 숭배하는 활동들에 참여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생존을 위해 국가 행사를 포함한 일상적 활동들에 참여해야만 한다.

기독교인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학교, 군대와 노동당으로의 진입이 금지되는 계급을 가지고 있다. 노출된 기독교인은 노동수용소나 완전통제구역과 같은 곳에 정부에 의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기 때문에 어떤 교육과정도 받을 수가 없다. 기독교인 선조나 친인척이 있는 사람들도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교육에 있어서 불이익과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북한에서 경찰이나 보위부에 의한 무작위 불심검문은 매우 흔하다. 모든 북한주민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불심검문의 주된 초점은 "반혁명적 행위"이며, 반혁명적 행위로 간주된 "기독교 스파이"를 찾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노출에 매우 취약하다. 더욱이 사람들은 이웃을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것을 보면 당국에 보고한다.

국가 영역 : 북한 국영방송은 기독교인이나 선교사를 악, 스파이, 테러리스트, 국가적 반역자로 묘사하는 반 기독교 프로그램들을 방영했다. 북한관영매체는 선교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간주했다. 기독교인들 또한 미국과 한국의 동맹들로 묘사된다. 대중매체는 물론 국정교과서도 기독교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집 안에 기독교 상징물이나 기독교 자료를 노출한 것 역시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적발될 경우, 소유자는 체포, 구금 또는



김일성주의 선전물로 장식된 거리모습

사형에 처해지게 된다. 공개된 장소에서 기독교의 상징물을 노출하는 것은 국가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여겨져,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심지어 체제전선용으로 세운 평양의 교회들도 십자가를 걸지 않는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임의로 체포되고 구속되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는다. 재판을 받더라도 동등하거나 공정한 처우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원은 노동당의 의, 더 정확히는 지도자의 의지를 지지하고 정당화한다. 법정 절차를 밟은 외국인 기독교인들조차 동등한 대우를 박탈당했고 장기간 임의의 구금 상태에 놓여야만 했다.

교회 영역 : 북한에서는 평양의 공인된 교회들의 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 활동이 불법이다. 이러한 체제선전용 정부 공인 교회들은 북한 내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증거로 제시되지만, 북한 내 지하교회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발각되어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살해된 사례가 적지 않게 많다.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목회자는 없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지하교회그룹 지도자들을 색출하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지하교회 지도자가 잡히면 대체로 기독교인 네트워크 전체를 추적할 수 있고 교회를 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이름과 주소를 적지 않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정부당국은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일에 매우 익숙하다.



1920년대부터 사용된 기독교자료들

외국 관광객의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성경 한 권만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이는 절대로 북한에 남겨두고 갈 수 없도록 통제된다. 이 외 모든 성경책과 다른 기독교 자료들은 물론 공인된 교회를 제외한 북한 내에 있던 자료들 역시도 반입이 금지된다. 북한 내부에서는 기독교 자료 제작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건국 이전에 발간된 성경과 찬송가를 비롯한 기독교 자료들을 기독교인들이 매우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주민들은 정부의 허가없이 출국이 불가능하며, 허가 역시 목적과 집안 배경과 성분 계급에 따라 엄격한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해외의 다른 기독교인들과 만나거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꿈도 못 꾸다.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 기독교인들도 엄격한 감시 아래 활동하기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 없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북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다는 보도가 있지만 이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북한에 공식적인 교회는 존재한다고 해도 북한 내 기독교 대표라고 보기 어렵다.

비공식적인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다. 북한 정부에 의해 공인되고 통제되고 있는 교회가 총 4곳이다. 평양에 있는 공인된 교회들은 앞에서 말했듯, 국제 방문객들에게 북한 땅에도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존재한다. 4 곳 중 1곳은 카톨릭교회, 2 곳은 개신교회, 1곳은 러시아 정교회이다. 이 곳들은 교회 공동체로서 어떠한 기능도 하지 않으며, 정부가 정한 제한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공간도 가지고 있지 않다. 교회는 목사나 목양자를 자유롭게 훈련시킬 수 없으며, 청소년 사역은 절대 불가능하다.

북한 교회의 역사

1603년, 조선의 한 외교사절단이 중국 베이징에서 예수회 소속 중국선교사가 쓴 신학책 몇 권을 들고 조선에 들여왔다. 이 외교사절단은 책의 내용들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로마 카톨릭을 통해 한반도 땅에 뿌려진 기독교의 첫 씨앗이 되었다. 1758년, 조선 영조는 기독교를 악행으로 간주하여 공식적으로 금지하였고 이로 인해 조선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게 되었고 특히 1801년과 1866년에 박해 정도가 매우 극심했다. 이 당시 일어난 박해로 인해 한반도 전역에서

약 8,000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죽임을 당했다. (크리스천투데이, 2020년 8월 14일)

1886년,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북한에 정착했는데, 당시 선교사들은 북한 땅에 기독교 공동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했고 이 후 1년 뒤 한글 성경이 출판되었다. 1905년, 한일병합(1910년 공식화)은 기독교가 한국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운동과 연결되면서 의도치 않게 기독교인들의 수가 놀랍게 증가하였다. 1907년에는 평양대부흥운동이 시작되었고 수도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수백개의 교회들이 순식간에 생겨났고 수많은 부흥회가 일어났다. 또한 선교사들은 전국에 걸쳐 교육기관들을 세웠다.

그러나, 일제치하에 들어가면서 교회는 점점 박해를 받기 시작했고,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은 일본 신사에 참배하도록 강요를 받았다. 일본이 세계2차대전에 패한 후 북한의 아버지로 알려진 김일성은 한반도 38선 이북의 땅인 소비에트 연방이 장악한 지역에서 권력을 잡았다. 1948년, 김일성은 공산주의체제를 강제적으로 도입했다. 한국전쟁(1950-1953)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피난을 갔고 전쟁이 끝난 후,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투옥되거나 외딴 지역으로 추방되었다. 그리고 남은 교회들은 모두 지하로 들어가게 되었다. 한국전쟁 전 북한 땅에는 약 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불과 10년 만에 북한 땅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기독교인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로부터 수십년이 지난 지금 현재 북한 내에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가장 엄격한 종교적 자유와 박해를 경험하고 있다.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기독교 공동체

많은 북한 기독교인들이 한국전쟁 당시 죽거나 한국으로 남하한 반면, 일부 기독교인들은 남아서 후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고, 현재는 3대 혹은 4대 후손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북한의 모든 국민들은 “성분”이라는 사회적 계급에 따라 분류된다. 기독교인은 “적대적”계급으로 분류되며, 개신교인은 37등급, 카톨릭교인은 39등급으로 다시 분류된다. 이 계급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모나 조부모가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출신성분으로 인해 외딴 마을로 추방되어 고립된 삶을 살아간다. 기

독교적 배경을 가진 기독교 공동체의 극히 일부만이 자신들의 신앙을 숨기고 지하교회를 형성할 수 있다. 연좌제 원칙에 따라, 이들 기독교인의 후손들은 극복할 수 없는 사회적 장벽을 마주하며 의심과 감시 속에 살아간다.



예루살렘 웨스트뱅크 분리장벽에 그려진 한반도지도

개종한 기독교인 공동체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 혹은 “김일성주의”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갈 때, 중국교회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2000년대 이 후에도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수는 아니었다. 개종한 북한 그리스도인들은 북한으로 돌아간 후에도 기독교 신앙을 지키며 믿을 수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Associated Press, 2018년 4월 4일).

※ 특이사항: 북한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연속 월드와치리스트(World Watch List) 박해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 1위에 올라 있다.

북한의 박해 요인들

공산주의의 탄압	매우 심함
독재정권의 억압	매우 심함
정부관료의 탄압	매우 심함
지역사회의 박해	심함
가족의 박해	심함
정치집단의 박해	매우 심함

시몬형제, 북한교회의 비전을 전하다 “살아남자, 강해지자, 준비되자, 복음을 전하자”

시몬 형제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북한사역 초기에 대한 이야기와,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위험들, 그리고 오픈도어를 통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지원이 북한 교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북한 교회의 놀라운 비전에 대해서 나누어 주었다.

Q. 시몬 형제, 중국에서 북한 그리스도인들과 처음으로 접촉한 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오픈도어 가족들에게 조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북한 성도들이 가장 먼저 요청한 것은 성경과 찬송가였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나 찬송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과 찬송을 인쇄해서 북한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성경과 찬송을 보급한 뒤, 저희들은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1990년 대의 고난의 행군이 이미 지나간 뒤 에야 그들은 저희들에게 식량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이미 목숨을 잃은 상황이었었는데, 우리가 북한 땅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거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난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 성도들은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사실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저희들은 북한 성도들에게 식량을 공급과 함께, 중국에서 안전하게 머물며 성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처를 마련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곳을 통해서 성경책과 다른 기독교 서적들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여년을 지나오면서 저희들은 라디오 방송 사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자정이 지나면 북한으로 기독교 라디오 프로그램을 송출합니다.

Q.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가요?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매우 가난합니다. 1990년대 발생한 기근은 매우 갑작스럽게 일어난 기근이었습니다. 현재의 기근은 장기간 만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음식이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경제는 사실상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북한 경제에 생명줄이 되는 지하 경제가 있는데, 북한 지하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이 장마당이라고 불리는 암시장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 곳에서 중국에서 사오거나 밀수해온 음식과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물건들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동안, 음식 가격이 네 배가 올랐고 쌀 1킬로 가격이 평균 월급의 몇 달치나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들을 감당해야만 하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신앙을 감춰야 합니다. 아무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한 부부는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서로의 신앙을 전혀 몰랐다가 결혼 후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라디오방송사역

Q. 북한 당국은 북한 크리스천들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나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책을 여러 권 쓸 수 있습니다. 북한당국의 감시체계는 정규 경찰, 첩보기관, 스파이, 정보원 등을 포함한 아주 조직적으로 구성된 복잡한 체계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북한의 마을, 소도시나 도시는 권역과 이웃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모든 주민들은 각각의 이웃구역에 속하고, 모든 이웃구역의 담당 리더는 자신이 담당한 구역 구성원들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찰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원들은 기독교 활동에 대해 경찰에게 제보하고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스파이들은 심지어 종교 훈련도 받습니다. 누가 갑자기 담배를 끊었는지, 누가 식사를 하기 전 잠시 눈을 감았는지, 누가 성경 이야기를 해주거나 기독교 찬양일지 모르는 노래를 흥얼거렸는지, 어떤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만나는지 등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에 교회에 가지만 북한 사람들은 토요일에 김일성센터에 갑니다. 김일성 건국신화에 따르면, 김일성이 일본을 물리치고 북한을 건국한 건국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김일성센터에서 모든 사람들은 김일성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과 손자 김정은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습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또 한가지 특이한 교육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북한 국민으로서, 함께한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스스로의 잘못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앞에 선 사람을 비판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이것은 불법 활동을 드러내기 위한 또 하나의 교활한 방법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모든 기독교인들은 미국을 위해 일하는 적대적 배신자이며,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 보내진 자들이라는 세뇌 교육을 받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부모가 검정책(성경책)을 읽으면, 부모를 배신하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Q. 기독교인이 만약 체포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인생이 끝납니다. 체포되면 강제수용소로 보내지고 몇 달 동안 조사당하고 고문을 받습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고 처형당하지 않으면, 정치범을 수용하는 5개의 큰 강제 노동 수용소 중 하나로 데려갈 것입니다. 이 수용소에서 풀려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면, 재



북한성경책

교육 수용소 이감이 구형될 수도 있습니다. 재교육 수용소에서 수 년 동안 바르게 행동하고 구형 기간 동안 살아남는다면 풀려나는 일이 가능합니다. 북한은 또한 “연좌제”라는 법을 엄격히 집행합니다. 성경을 소지하는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직계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처벌을 받는 법입니다.

Q. 북한 정권은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기독교를 반대 하나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무신론국가이지만 지도자들은 신으로 숭배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지만 그들 마음 속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기독교가 북한 최대 적대국인 미국과 한국의 핵심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 정권은 로마 카톨릭교회가 어떻게 폴란드의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했고, 루마니아의 혁명이 기독교 목회자로부터 시작되어 어떻게 공산주의 지도자 니콜라에 차우세스쿠(Nicolae Ceau escu)를 사망하게 했는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북한 정권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의 몰락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더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일성은 1912년에 태어나 기독교인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후 일 그는 공산주의 게릴라 전사가 되었습니다. 김일성은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러시아에서 보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러시아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김일성은 조부모님들의 기독교적 신앙에 적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Q.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만나나요? 가정교회에서 함께 모이나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모든 것들이 감시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오직 일대일로만 만납니다. 모이는 그룹의 사람들이 모두 가족일 때는 여러 명이 함께 모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려면 명확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보고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북한 성도들은 대체로 마음 속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안전이 충분히 보장된 상황에서만 겨우 속삭이듯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Q. 왜 이렇게 많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나요? 국경을 넘는 것이 쉬운가요?

북한사람들은 절망적입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북한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체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을 다녀옵니다. 북한 기독교인들은 또한 성경교육을 받는 것과 현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중국 국경을 넘는 것은 1990년대보다 지금 훨씬 더 위험합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북쪽으로는 두만강, 남쪽으로 압록강이라는 큰 강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헤엄쳐서 건너거나 겨울에는 얼어붙은 강 위를 걸어서 건너곤 했습니다. 지금은 양국 모두 국경선 경비를 훨씬 강화하여 울타리를 치고 군인들을 배치시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강을 건너는데, 경비가 정말 많이 들어서 때로는 수 천 달러가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강을 건넌다고 해도 반드시 탈북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때로는 체포 할당량이 정해지기도 하는데, 특정 숫자 만큼의 탈북자들을 체포해야만 합니다.

만약 중국에 머물고 있다면, 불법체류자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인신매매자들의 희생양이 되고 가난한 중국 남성들과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끔찍한 운명이지만 북한에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또 다른 큰 차이는 '합법적인 난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출국 비자와 중국 입국 비자를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불한 비자 비용을 다시 벌고 충분한 수익을 남기려면 법적 체류 기간을 넘어서까지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



국 공안들에게 잡히게 되면 또한 벌금을 내야합니다. 그래서 난민들은 직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가족들을 도울 충분한 돈을 모을 때까지 불법 체류자가 되어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닫히면서, 북한 사람들을 북한 내에 갇혀 있습니다.

Q. 30년이 넘게 북한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역 해오셨는데, 북한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다음 네 가지입니다. 살아남자, 강해지자, 준비되자, 복음을 전하자.

Q. 어떤 의미인가요?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처럼, 기독교인들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배고프고 아프거나 육체적으로 활동이 불가능하면 어떤 사역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해 받는 교회가 가장 먼저 극복해야하는 것은 **육체적 생존**입니다.

다음은 **영적 생존**입니다. 교회는 리더들과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여러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북한성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길 원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성도들은 비밀 신자들을 **제자를 만드는 성도들로** 준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같은 북한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Q. 정말 놀랍습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시아의 다른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나요?

얼마 전에 재밌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북한 교회 지도자들이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새로운 라디오 프로그램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기 원하고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Q. 북한 교회의 비전을 위해 오픈도어가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중국에 있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올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북한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생존을 위해 식량, 의약품, 생필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저희들의 비밀 은신처에서 북한 성도들을 기독교 자료와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화되고 준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소망하는 것은 우리들의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여 더 많은 북한 기독교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Q. 우리의 사역을 확장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오픈도어 사역자로서 모든 박해받는 교회들이 빛과 소금이 되고 혼자가 아님을 확신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나 청소년이 없는 교회를 상상할 수 있나요? 나이가 있는 청년이나 어른들만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 교회도 없고, 훈련된 목회자도 없고, 정규성경교육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할 수 있는 모임이 거의 없다면 어떻게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강제적 세뇌교육을 받아야 하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고문을 받는 위험을 신앙 때문에 감수해야 한다면, 그래서 엄청난 압박을 받는 교회, '진짜' 목회자도 없고 성경공부와 교제를 위해 만날 수조차 없이 오직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교회만이 존재한다면 가능한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형제자매들은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Q. 만약 우리가 사역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북한에 있는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답을 해본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다른 통로를 통해 필요들을 북한교회에 공급하지 않으셨다면, 북한교회는 물적 영적 양식 모두 공급받지 못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빈곤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훈련 받지 못하고, 격려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Q. 시몬 형제, 형제님은 중국에 구축한 현지 네트워크와 비밀 은신처를 통해서 사역하고 계신데, 북한 성도들이 은신처를 떠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음식과 가능한 의약품을 공급 받고, 목회적 돌봄과 훈련과 교제를 통해 영적/육적 회복을 얻은 후, 북한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Q.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가족을 뒤로 하고 떠나 왔어요. 대부분의 북한 난민들은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가족들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Q. 식량과 의약품이 많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어떤 의약품과 식량을 주면 좋을까요?

네,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북한 사람들은 열악한 위생과 영양 부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음식은 꽤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쌀, 옥수수, 국수, 야채, 고기, 빵 같은 거죠.

의약품은 필요에 따라 다르지만, 아스피린, 종합비타민, 지혈제, 칼륨, 칼슘, 항바이러스제, 감기약, 항생제, 페니실린, 지사제, 비타민C, 기침약, 항균성약품, 항염증제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것들이죠.



Q. 북한 기독교인들에게 오픈도어의 도움이 어디까지 닿고 있는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북한 성도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라디오방송사역과 중국 내지 사역을 통해서 수만명의 북한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식량공급, 의약품조달, 그리고 기독교 서적들을 전달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Q. 전 세계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시몬 형제님과 팀원들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한다면 어떨까요? 이 사역을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022년에는 사역을 두배로 늘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새로운 사역자들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긴급한 저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 저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의 상황이 상당히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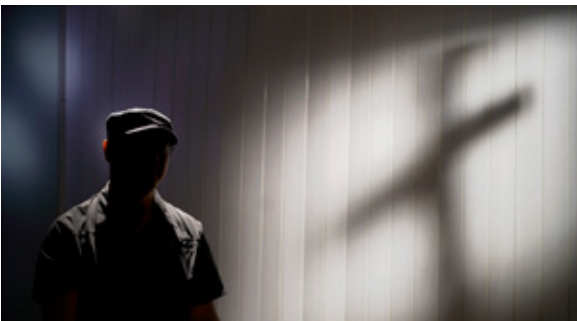
Q. 오픈도어의 북한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동역으로 교회가 변화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기독교인들이 북한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큰 용기를 얻었다고 고백한 북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편지를 통해 접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우리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우리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엔진이 없는 자동차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엔진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수많은 오픈도어 가족들이 24/7 기도 캠페인으로 북한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듣고, 북한 지하교회 자체적인 기도 캠페인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끝으로 북한성도들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 덕분에,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들을 잊지 않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인터뷰 2

**죽음을 감수한 마태와 베드로 형제의 고백,
"가끔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오픈도어는 북한 난민 기독교인들과 박해를 받은 교회를 위해 중국에 비밀 은신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사역이며 오랜 기간동안 훈련과 기도로 준비된 인원만이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 근처에 위치한 사역지로 보내지게 된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마태와 베드로 형제는 자신들의 부르심, 사역의 위험성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 나눠 주었다.

Q. 마태 형제님, 북한 기독교인들을 섬기는 현장 사역자가 된 계기가 있을까요?

마태 : 북한에는 아주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1990년도에 수만명이 굶주림으로 인해 죽었다는 소식을 뉴스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께서 북한으로 가서 이들을 섬

기라고 저를 부르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북한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다면 이것은 더 심한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러한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오픈도어를 통해서 현장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Q. 베드로 형제님, 어떤 사역을 통해서 북한 성도들을 돕고 계세요?

베드로 : 저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적은 양은 북한 주민들이 복음을 접한 적이 있고 그 중 많은 이들이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북한 주민들이 도움을 찾아 다시 중국으로 나오지 않고 북한에서 잘 살아 남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영적, 현실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은 북한지하교회가 북한체제 안에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Q. 사역에 어려움이 많이 있나요?

마태 :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들은 극히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사건들은 테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태형제는 2016년 조선족 한 목사님께서 북한 첩보요원들에 의해 살해당한 일을 언급한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살해당한 선교사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마도 관찰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늘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저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저는 이런 두려움들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없이는 이 사역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 육체적 어려움 또한 존재합니다. 저희들이 사역하는 곳은 매우 춥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이 곳 겨울은 6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어느 날 밤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추운 겨울 밤이었습니다. 새벽 1시에 기온이 영하 2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현지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3시간이 넘도록 그 분에게 연락하며 기다렸고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만나기로 했던 현지 파트너 번호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누구야?”

너무 놀랐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재빨리 바닥

에 핸드폰을 던졌고 돌덩어리로 핸드폰을 내려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서진 핸드폰을 배수구에 던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에 낯선 곳에서 갈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서야 대중교통을 타고 서둘러 그 지역을 빠져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저는 그 현지 파트너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사역을 하시다가 살해당하거나 납치된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 들어 보셨을 텐데, 그럴 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베드로 : 지금까지 평생 사역을 해오면서 하나님은 결코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저를 불러 주셔서,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태 : 하나님께 원망해 본 적이요? 절대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Q. 사역 현장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고 계신가요?

베드로 : 지금은 북한으로 돌아간 제가 훈련시켰던 한 공동체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름 시즌 동안 그분들은 밤에 옥수수 밭이나 깊은 숲 속에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한 번 모일 때, 보통 17명 정도가 비밀리에 모여서 모임을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Q. 오픈도어 후원자님들께 북한 사역이 왜 계속되어야 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베드로 : 전세계 모든 국가를 통틀어 북한 기독교인이 가장 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성도들은 시련과 고통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북한의 박해받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마음을 북한 성도들에게 쏟아주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항상 송배가 가득한 북한 땅이 회복되고 거룩한 예배와 찬양이 넘쳐 흐를 때까지 이 사역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 :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우리가 남겨진 자들이라고 부르는 기독교 선조들의 후손들입니다.

또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중국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그 분들이 신앙을 잘 붙들고 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지구촌적 교회로서 북한 기독교인들과 연합되는 것이다. 저는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믿으며, 그들 또한 자신들의 놀라운 간증들을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한교회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몫의 일을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풍족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성장한 우리들이 힘겨운 선교 현장에, 더욱이 적대적인 환경에 정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북한 성도들 강력한 선교사들로서 다른 박해지역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베드로 :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장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켜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70년 전, 북한 교회는 다 무너졌고 모든 크리스천들은 박해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지하로 숨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북한과 북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태 : 북한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 북한 성도들과 북한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현지 사역자로서, 저는 과거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보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북한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납치를 당했고, 일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다고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전세계에서 박해가 가장 심한 땅, 북한은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북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고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북한 기독교인들은 신실한 성도로 그 땅에 남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화현장

북한에 희망이 있는가?

‘탈북자 디모데 형제에게 듣는 북한에 대한 전망’

Q. 북한 주민들은 계속되는 식량 위기에도 불구하고 식량소비를 줄이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북한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보시나요?

2021년 말에 접어들면서,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최근 “2025년 중국과의 국경을 재개방할 때까지는 식량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수많은 북한주민들이 매일매일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매우 충격적인 요구입니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최소 천 만명 혹은 전체 인구의 40퍼센트가 긴급 식량 원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은 지금의 식량 위기를 단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북한주민들이 팬데믹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의 40%가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홍수와 폭우, 가뭄, 그리고 특히 부족한 농업장비와 부품들로 인해 농산품 생산이 대체로 열악합니다. 북한 국영 농장들은 아주 적게나마 식량을 생산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생산품의 70%를 바로 군대로 보냅니다. 수십만의 일반 국민들은 남은 30%의 식량으로 생존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열악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트랙터, 비료, 살충제 및 다른 재료들은 가격 상승으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워졌고, 국경이 폐쇄되어 물가가 급등했고 식량생산은 더욱 평소보다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수입된 물품이나 암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 밀수된 물품 할 것없이 북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식량 공급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폐쇄로 인해 대부분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정권이 극히 일부라도 핵무기에 사용하는 재정
의 극히 일부라도 식량공급으로 전환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사용한다면 지금의 식량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
니다.

Q. 북한 주민들이 지금과 같은 고통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 흑암의 세력이 언제까지 북한을 뒤 덮도록 두실 겁니까?” 이것은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주 드리는 질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제 눈 앞에서 북한의 형제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립, 기아, 어둠, 억압과 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당국은 계속 “허리띠를 졸라 매고 친애하는 지도자들을 따르라”라고만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고통이 70년이 넘도록 북한 땅에 계속되고 있을까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과 ‘어두움’의 경험들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희망으로 더욱 의지하게 해주었습니다.

언젠가 중국에서 가장 어둡고 춥고 무서운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저는 나의 모든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믿음입니다. 당시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습니다.

그 후로도 극심한 트라우마와 불면증과 악몽들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붙들었고, 모든 고통과 눈물을 극복하고 다음 날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소망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비롯한 전세계의 박해 받는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도움을 전할 때 우리들은 하나가 됩니다.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1990년대부터 수백만 명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기근 이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시 비슷한 위기에 직면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진실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북한 땅에는 수만명의 진실한 비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로 주어진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여 열방의 박해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은 오픈 도어가 매년 6만 명의 북한 기독교인들에게 중국에 마련된 비밀 은신처(안전가옥)와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필수적인 식량 지원과 영적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북한의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 글을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6만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기도와 후원에 응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살아남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시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한 하나님 이십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Heart to Heart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히13:3)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모임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월력”을 펼쳐 놓고 기도제목을 읽어 봅니다. 그러나 도무지 그들의 심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구 저 건너편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나의 삶에 아무런 파동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너무나 안정되었고,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아무런 외부압력도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말로 전달될 수 있는 의사소통은 17%에 불과하다. 그 언어에 몸짓과 표정 그리고 감정이 이입되면 의사소통은 45%까지 올라간다.” 그럼에도 여전히 언어로 표현되는 소통은 절반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왜 흔히 쉽게 오해하고, 오해 받는지 좀 알 것 같군요. 그럼 무엇으로 나머지 소통의 빈공간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된 경험입니다. 함께 공유한 경험을 나눌 때 비로소 소통이 제대로 작동되겠네요!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박해 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내 몸 속에 비슷한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박해현장과 똑 같은 경험은 없지만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박해현장을 신비롭게 연결시킬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한국오픈도어는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온, 오프라인으로 더 긴밀하게 연결하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역사하는 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해부터 매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서울
오픈도어 안암동사무실
2월7일 Pm 7:00
오현정 간사

태백시
삼수점 기도회
매주 토 pm2:00
정숙희 자매

일산
제자광성교회 기도팀
매주 월
원정미 사모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개인이나 교회기도팀은 선교회로 연락해 주세요.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지역별 기도모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연중캠페인 ——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의 따뜻한 이웃이 되어 주세요. ——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골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1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름(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은행		출금계좌번호			
출금액	10,000₩	출금일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시리아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린도전서 12:26

Q. 시리아 기독교인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시리아에는 약 677,000명의 기독교인 살고 있는데, 총 인구 1,900만 명 중 약 3.6%에 해당하는 인구예요. 시리아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시리아 기독교인들 역시 많은 충돌과 박해로 인해 시리아를 떠나면서, 지난 10년 동안 시리아 내 기독교인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Q. 시리아 내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공적 영역은 물론 사적인 영역에도 시리아 내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매우 극심해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수치로 여겨지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매우 심한 박해를 받아요. 이러한 문화때문에, 가족들 스스로가 비밀리에 지역 정부 관료들에게 회심한 기독교인 가족을 감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해요.

이슬람 극단주의단체들의 통제 아래 있는 지역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대부분의 교회 건물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장악되거나 파괴되고 있어요. 시리아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이 같은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교회 지도자들의 납치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정부에 대항하는 이슬람세력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사태로 기존의 취약한 영역들은 더욱 상황이 나빠졌지만, 폭력적인 공격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 박해지역의 기독교 공동체를 돌보는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캠페인’은 계속됩니다.

**[희망의선물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인구
1억1,280만 명 / 기독교인 6,750만 명
지도자
아비 아메드 알리 총리
박해지수 (2점 증가)



36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에서, 크리스천 박해는 '어떤 종류의 크리스천'인가에 따라 다르다.

에티오피아정교회는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교파들은 국가에 의해 박해를 받는다. 때로는 정교회에 의해서도 박해를 받는다. 박해에는 괴롭힘, 학대, 예배 불가 등이 포함된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또한 교회를 박해한다. 무슬림 출신 크리스천들은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에 노출되고,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하며 마을의 공동자원에 접근을 거부당한다.

오픈도어는 현지 파트너들을 통해 에티오피아 성도들을 지원합니다. 박해대처훈련, 경제적 강화, 생계훈련, 법률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기도해주세요

- 에티오피아의 모든 교파 소속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 이슬람 극단주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 크리스천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 무슬림 출신 성도들이 용기를 갖고 담대하도록.

범죄조직 네트워크가 멕시코 전역에 퍼져 있고 크리스천들은 폭력의 타깃이 되는 위험에 끊임없이 직면한다. 크리스천들은 부패와 마약사용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범죄조직들은 청년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고 강제징집을 하기도 한다. 범죄단체 가입을 거절하고 범죄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위협을 받거나 납치를 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한다.

멕시코 남부의 원주민 마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천들은 가족과 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전통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택했기 때문이다.

오픈도어는 멕시코의 박해받는 성도들을 강건하게 세웁니다. 성경적 훈련, 법률지원, 트라우마 상담치료, 사회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도해주세요

-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사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수소망을 선포하기를.
- 범죄카르텔의 폭력 피해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 박해받는 성도들을 섬기는 오픈도어 스태프들의 안전을 위해.

37 멕시코



인구
1억 3,390만 명 / 기독교인 1억 2,820만 명
지도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박해지수 (4점 증가)



후원요청

코로나(COVID-19) 긴급 구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하며
위드코로나 시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긴급구호에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 주세요!

코로나후원계좌
SC제일은행 221-10-011008(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직 신앙 때문에 받들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22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 지원40\$ (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 지원 20\$ (30,000 ₩ ~)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 ~)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1.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02-59603171/010-7548-3171)또는 메일(odsk@opendoors.or.kr)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4.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생년월일(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위 표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보내실 곳 : 010-7548-3171